

폴리텍대학, 현장중심 안전교육으로 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강화

- 시설관리, 급식 조리 등 현장 근무 교직원 대상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온라인 중심의 전달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시설관리, 급식 조리, 환경미화, 경비 업무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겪을 수 있는 실제 사고사례와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현장 근무 여건을 고려해 쿨링패치, 팔토시 등 폭염예방키트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교육 만족도를 높였다.

캠퍼스의 안전 환경을 책임지는 이들의 예방 역량과 안전 의식을 높여 전 구성원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캠퍼스 환경 조성에 더욱 힘을 실을 예정이다. 지난 5일 남인천캠퍼스를 시작으로, 6일 반도체육합캠퍼스, 11일 광주캠퍼스에서 순차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현장 중심 교육은 2024년 캠퍼스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2025년 7월까지 인천, 대구, 창원캠퍼스에서 운영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연계 안전교육 시범운영’을 기반으로 본격 시행하게 됐다.

**TBM(Tool Box Meeting): 작업 시작 전 현장에서 간단히 진행하는 안전 점검 회의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이번 교육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안전한 폴리텍’이라는 기조 아래, 현장 근무 교직원의 사고 예방과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 대응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캠퍼스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경영관리실 홍보부	책임자	부 장	구연욱 (032-650-6740)
		담당자	차 장	박미선 (032-650-6742)
담당 부서	총무국 안전보건부	책임자	부 장	김평수 (032-650-6781)
		담당자	과 장	이현숙 (032-650-6782)



▲ 5일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에서 현장 근무 교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6일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에서 현장 근무 교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 폭염예방키트를 전달하였다.